"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 만들겠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

'5+5 광주 신(新)경제지도' 역점 공약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투트랙으로 가야
복합쇼핑몰 유치 공익적 모델 고민 중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변화해야 한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2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도시'로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취업과 창업, 결혼·출산·보육, 교육, 문화·여가의 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활력 넘치는 광주', '누리는 광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가 보장된다면 광주는 이제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가 강조하는 '새로운 광주 시대'란

▲(제가)정치를 하는 이유는 '광주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었고, 어떻게 지역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런 가운데 1년8개월 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대구 등 전국 경제투어를 다녔다. 지역 리더가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체감했다.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를 이끈, '역사를 혁명하는 도시'였다. 이제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자연스레 일상의 민주주의가 꽃 피고, 시민들의 삶에서 다양한 기회가 보장돼 이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광주가 되는 것이 '새로운 광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준비를 마쳤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광주 시대'를 위한 역점 추진 공약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공약은 '5+5 광주 신(新)경제지도'다. 5대 신경제지구와 5대 신활력특구로 광주의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5대 신경제지구는 △차세대배터리(남구)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 산업(북구) △자율주행차(광산) △디지털정밀의료(동구) △MICE산업(서구)이다. 5대 신활력특구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춘 영산강 익사이팅벨트 △교통·쇼핑·업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송정역 활력벨트 등이 있다. 또한, 전국 최초 가사수당, 5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등 '광주에 없는 20가지 - 이제는 됩니다' 공약 등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의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법은.

▲해결할 현안은 많다. 이 중 완공 후에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지산IC 안전성 문제와 해묵은 현안인 어등산 개발과 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광주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홍근 당 지도부에 건의해 군공항특별법 추진을 약속받았다. 지지부진한 어등산 개발사업은 최근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치공원과 영산강, 어등산 관광단지 연계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테마파크를 구상 중이다.

-당선되면 야당 시장이 된다. 국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 방안은.

▲윤석열 정부 성공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광주·전남은 물론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손을 잡고 지방균형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함께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안한 '반도체 특화단지'처럼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리더들의 결단과 의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중요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

-민선 7기에 광주·전남 상생은 더뎠다는 평가다.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방향은.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무한경쟁을 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뿐이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맺은 상생정책 협약이 더 큰 전남과 더 큰 광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상생특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유치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상호 교류협력 확대 △경제·생활권 통합 등도 추진하겠다.

-지난 대선 기간 중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시민들도 복합쇼핑몰을 원하고 있고, 광주도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 대형복합쇼핑몰은 도시 내부에, 창고형 대형매장은 도시 외곽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단순 구매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인 만큼 새로운 문화공간과 지역 관광이 연계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윤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 정부가 마중물로 투자해 준다면 민간투자자들이 훨씬 더 좋은 복합쇼핑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역상권과 기업, 시민까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공익적 모델을 고민 중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진흥원 설립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광주의 시대정신은 변화이다. 달라진, 준비된 제가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11대 전략산업을 잇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치도시 광주, 이제 경제도시로"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광주 정치도 견제와 균형 필요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
2년 이내 예산 10조원 시대 열 것

"광주의 정치발전, 광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야 한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2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도시' 광주를 이제 '경제도시'로 바꾸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첨단과학 선도도시로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그동안 광주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선택했지만, 광주 발전은 항상 뒷전이었다"면서 "이제 광주 정치도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경쟁 체제를 통해 지역 정치와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 지역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불모지인 광주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지난 대선 과정에 광주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2.7%의 지지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광주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평소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광주 정치 상황을 보면서 '뭔가 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광주 정치 변화의 건전한 일부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는 열망과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선거에서 목표는.

▲선거에 나선 이상 당선이 목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정치의식은 높지만, 먹거리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탓이다. 시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했지만, 민주당은 무능·부패, 내로남불 태도만 보였고, 광주 발전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이런 호소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최종 득표에서 광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최근 '광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글이 주목받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지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SNS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광주는 지난 27년 동안 민주당 일색이었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당 공천자들이 당선으로 직결됐다. 그래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공직자는 나태해지고 발전보다는 편안함, 재선·3선 등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정치의 제1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며,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대급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여당 후보로서 현재 7조원 수준의 광주시 예산을 2년 이내에 10조원 규모로 키워 광주를 첨단과학 선도도시인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이 가운데 8대 핵심공약으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설립 △대형 복합문화쇼핑몰 유치 △복합놀이공원인 레저파크 '지(G)랜드' 조성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및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광주 경제 활성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센터를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광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과제에는 광주에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 AI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 광주를 첨단과학 선도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광주는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해나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유치가 공약에 포함됐는데, 해결방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가장 핵심은 기존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존 특별법으로는 힘들다. 예산이 없는 지자체가 막대한 사업을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주도로 특별법을 개정해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군공항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180석인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해주어야 한다.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된다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수익을 보는 대기업,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수해를 받는 시민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대형쇼핑몰 유치를 위한 길을 찾겠다.

-광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의 공동체이자 동지인 제가 광주시장에 당선되어야만 광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광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광주의 숙원사업 등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